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3호 【루계 제2206호】

주체102(2013). 1
12
토요일
음력 12. 1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와 국제 및 지역기구 출판보도물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1일부터 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국제 및 지역기구 출판보도물이 전하였다.

네팔신문들인 《아르판》, 《저너 다러나》, 《네팔 뉴스》, 로씨야의 인터네트신문 《오벡찌브나야가제따》, 인터네트TV 《크라스노예 쩰레비제니예》와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씨비리 및 원동뷰로,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프랑스주체 및 선군사상연구소조, 프랑스반제전선,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 브라질공산당, 브라질주체사상연구쎈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칠레공산당, 베루조선친선문화협회 그리고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인터네트홈페지들이 《김정은원수께서 2013년을 맞으며 신년사를 하시였다》, 《김정은각하께서 2013년 1월 1일에 하신 신년사》 등 제목을 달고 신년사의 전문을 편집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과 그이께서 신년사를 하시는 사진을 모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머리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원수께서 1월 1일 2013년 새해를 맞으며 신년사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김일성주석탄생 10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 주체조선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였다고 강조하시고 2013년에 조선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였다.

베루조선친선문화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2013년새해의 첫아침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밝히는 신년사를 하시였다.

협회는 존경하는 김정은원수의 신년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조선인민의 투쟁의 승리를 확신한다.

*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1일부터 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로씨야신문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 라오스신문 《비엔티안 마이》, 인도네시아의 신문들인 《꼼빠스》, 《쑤아라 까르야》, 《꼬란 뗌뽀》, 《씨뿌따르 인도네시아》, 《레뿌불리까》와 안따라통신, TV 1방송, 인디아신문 《뉴델리 타임스》,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 뛰르끼예신문들인 《휘리예트 데일리 뉴스》, 《밀리예트》, 민주꽁고신문 《라쁘로스뻬리떼》, 탄자니아신문들인 《데일리 뉴스》, 《씨티즌》, 베루신문 《엘 베루아노》, 로므니아의 신문 《아데버룰》과 인터네트통신 국제보도 그리고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그이의 초상화와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전문 또는 요지로 전하였다.

중국의 홍콩신문 《사우스 챠이나모닝 포스트》,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몽골신문 《울쓰 터린 토임》, 벌가리아신문 《뜨루드》, 이딸리아의 안사통신과 TV 및 라지오방송들, 프랑스의 인터네트신문 《뉴스링》, 우루과이의 쎄. 에끼스36라지오 쎈떼나리오방송도 신년사의 상세한 요지를 보도하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베루, 나이제리아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베루 김정일대원수회고위원회는 3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밑에 변함없이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갈것이라는것을 확언하시였다.

우리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적극 지지하며 경제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위업에 련대성을 보낸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는 1일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는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이라고 하시면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이 반드시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로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본사기자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

브라질단체 인터네트에 특집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인터네트 홈페지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사진문헌을 모시고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으시는 분 하면 누구나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를 꼽을것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이의 현지지도는 세계언론계의 가장 큰 관심대상이다.

거침없고 활달하시며 여유있는 자세로 인민들과 교감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누구나 매혹을 금치 못하게 한다.

특히 사람들이 감복하게 되는것은 김정은령도자의 후대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다.

예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설명절에 즈음해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는 원아들의 볼을 다독여주시고 식사하는 모습까지 오래동안 보아주시며 친부모보다 더 따뜻한 혈육의 정을 부어주시였다.

전례없는 대규모의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행사에 참석하시여 학생소년들을 곁에 앉히고 다정하게 담화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고 매혹적이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서해의 외진섬초소 장재도에 오르시여 태여난지 6개월 된 어린이를 한품에 안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의 살림집에 입사한 로동자의 가정을 찾으시여서는 소학교에 다니는 둘째아들에게 그림그리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며 따뜻이 애무해주시였다.

8월에는 청년절을 맞으며 몸소 성대한 경축대회까지 열도록 하시고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들에게 축하문도 보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어린이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미래이다.

후대들에 대한 정치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온 나라 학생소년들에게 새 교복을 마련해주시고 새옷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시며 너무도 기뻐하시여 몸소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시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아직도 생생하다.

또한 산골마을 세쌍둥이를 위해 직승기까지 띄워주신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이야기도 후대사랑의 전설로 길이 전해지고있다.

그 사랑이 오늘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고있는것이다.

국제사회는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보고있다.

김정은령도자를 따라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에게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재중동포들의 격동된 심정을 반영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에 대한 열망과 기대속에 새해를 맞이하고있는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새해의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신데 대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접한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가슴가슴은 활화산마냥 끓어번지고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위대한 백두의 선군령장들의 불멸의 혁명실록을 천세만세 대를 이어 길이 빛내이며 김일성, 김정일조선,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지난해의 력사적인 사변들을 긍지높이 총화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년사에는 올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인민군대강화,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이 환히 밝혀져있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체 일군들과 재중동포들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조국의 천만군민과 보조를 맞추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해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회장 담화 발표

장순정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회장이 3일 담화를 발표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담화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를 통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필생의 념원과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시면서 온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을 벌리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고 밝혔다.

지나온 북남관계는 동족대결로 나간다면 민족에게 전쟁의 참화가 들씌워지게 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할 때 평화와 통일이 앞당겨진다는것을 실증해준다고 담화는 주장하였다.

담화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력사의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데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담화는 모든 재로동포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이 되는 력사적인 올해에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범민련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 성명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철저히 관철할것을 주장하여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가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에 대한 열망과 기대속에 새해를 맞이하고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조국이 변함없이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끌까지 곧바로 나아갈것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언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해외동포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조국통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이며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올해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데 대한 호소를 높이 받들고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애국활동에 발맞추어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이다.

우리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의 리명박패당은 새해벽두부터 벌려놓고있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밝아오리라는것을 확신한다.

본사기자

민족단합은 조국통일실현의 근본담보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나라의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자면 민족의 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그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민족의 재결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인것만큼 조국통일은 그 자체가 민족의 단합, 대단결을 의미하는것으로 된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가자고 해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해야 한다.

어떤 사회적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수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힘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력량이다.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는 여기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모든 차이점은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찾아 단결하여야 한다.

사상과 리념, 제도와 당파, 소속의 차이는 있을수 있어도 애국의 마음은 하나이다.

통일애국위업에 유익한것은 모두 받아들이고 해로운것은 함께 배격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며 단결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온 민족의 단합을 실현할수 있는 훌륭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6.15공동선언발표후 우리 민족은 대결로부터 화해와 단합으로의 력사적인 전환의 현장을 체험하면서 온 민족의 대단결에 통일이 있음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북과 남을 오가며 진행된 각 분야의 접촉과 대화, 협력교류, 각계각층의 통일행사들은 민족의 대단합으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강렬한 통일열망과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겨레의 운명을 걱정하는 조선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6.15의 기발아래 뜻과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련대련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민족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분쇄하고 대결시대의 온갖 장벽들을 제거하는것이다.

온 겨레는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민족의 단합을 저해하는 분렬주의호전세력의 반통일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을 비롯한 대결시대의 장벽들을 단호히 허물어버려야 한다. 남조선의 모든 6.15지지세력들은 조직적련대를 실현하여 통일애국력량의 결정적우세로 6.15시대의 흐름을 더욱 힘있게 떠밀어나가야 한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뿐이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통일애국, 민족단합의 거세찬 대하에 합류해나설때 이 세상 무서울것이 없고 그처럼 바라고바라던 통일의 새 아침도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김현일

조국소식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

평양시내 식료, 일용공업부문 공장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뛰는 가슴마다에 받아안은 평양시내 식료, 일용공업부문 로동계급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원대한 포부와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기대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함으로써 당과류, 사이다, 각종 포장재 등의 생산실적을 올리고있다.

평양곡산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초강도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애써 마련해놓으신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할데 대한 신년사의 구절구절이 모두의 심장을 두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수도시민들에게 맛좋은 식료품을 많이 보내주려고 떨쳐나선 이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해 과자생산계획이 매일 넘쳐수행되고있다.

지난해 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선흥식료공장에서 새해전투 시작부터 증산의 열풍을 일으키고있다.

경련애국사이다공장, 대동강식료공장 로동계급도 경공업을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다시금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로력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평양식료품포장재공장에서는 식료품포장재를 비롯한 일용품생산을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려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줄기찬 투쟁으로 생산에서는 끊임없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홍건도간석지 4호제방 1차물막이공사 완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 첫날부터 힘찬 투쟁을 벌려 홍건도간석지 4호제방 1차물막이공사를 끝냈다.

절세위인들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대계도간석지, 곽산간석지 2계단건설을 끌낸 기세로 홍건도간석지공사에 달라붙었다.

지난해 10월말까지 1호제방 1차물막이공사를 결속한 련합기업소에서는 로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4호제방 1차물막이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기 위한 전투에 진입하였다.

기업소에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공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으며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광명성-3》호 2호기 위성발사의 완전성공으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이 날로 더 높이 떨쳐지고있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건설자들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투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였다.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하루 최고 7 000여㎥의 토량처리와 90여m의 방조제쌓기를 해제끼는 혁신을 일으켰다.

뜻깊은 올해를 보다 큰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안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충천한 기세로 다음단계 공사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본사기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북의 2012년이 말하는 진리

남조선정치평론가 리 형 준

공정하게 쓰라, 진실을 말하라! 나는 언론인의 사명을 다시 새기며 이 글을 쓴다. 지난날 외곡된 자료에 함몰되여 시비를 담론해온 부끄러운 세월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이비언론의 탁류를 다소 정화시키고싶다.

북에는 액면그대로 평할수 없는 심오한것이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지난 1년을 지켜보는 과정에 이북은 진리로 이어가는 나라라는 정의를 내리게 되였다.

만고의 승부는 진리에 따른다. 진리를 기틀로 세우고 진리로 살찌워 진리의 천국을 서서히 드러내는 북의 리면을 다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진실을 추구하여 그것을 밝히고저 한다.

눈물너머 본 최고령도자

북주민들이 어버이로 믿고 살던 령도자를 잃고 어떻게 일어설것인가. 하늘땅을 놀래우는 비애의 곡성과 강처럼 흐르는 눈물을 멈출수 있을가. 이것이 진보적인류의 우려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찰나》를 노려온 북의 적대세력에게는 대북프로그람을 적용할수 있는 황금의 시간이였다. 일심단결된 나라의 표상을 60억의 시야에서 지우는것이 그들의 꿈이였기때문이다.

당시 생중계는 《조락》을 예언하며 추모대하에 좀줄기를 내고있던 사이비언론을 기슭으로 밀어버리고있었다. 눈여겨봐야 도저히 내부의 균렬을 찾을수 없었다. 오히려 비쳐든것은 더 뭉쳐지는 모습이였다.

만약 시청이 불가능했다면 세계는 령도자의 서거에 인민전체가 오열하는 현장을 볼수 없었을것이며 그렇게도 순결무구한 신뢰심이 있다는것도 몰랐을것이다. 《몸 녹이는 뻐스》와 치료소들에서 더운 차를 마시며 조의를 표하는 나라, 호상을 서는 젊은이들에게 모자를 씌워주고 장갑을 끼워주며 건강을 살펴주는 특이한 인정을 경험하지 못했을것이다. 과연 택시들이 병약자들을 찾아 무료봉사했다는 사실을 믿을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 모든것은 엄연한 현실이였다.

세계 1만 2천여 언론매체는 도의를 지키는 국민들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신분이 가장 큰 슬픔을 안고계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이시라는데 대해 뉴스의 홍수를 터치였었다.

인간의 마음은 사랑에 녹는다. 그러나 상실의 고통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실 전지전능한 힘은 보통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세계는 호상을 서며 눈물로 포석을 적시던 사람들이 잠을 잊고 일터로 나가는 모습에서 마술적힘을 릉가하는 그분의 사랑을 보았다. 그 사랑은 언어와 풍습, 정견과 신앙을 뛰여넘어 인류에게 전달되였다.

78년만에 닥쳤다는 12월의 강추위에 얼어버릴수 있었던 이북은 이렇게 견디였다. 견디여냈을뿐아니라 더 굳은 결정체로 표면화되였다.

인간은 마음으로 본다고 한다. 어버이사랑에 습관된 북주민들은 금방 어버이께서 다시 오시였음을 알았고 자기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 그분이야말로 어버이이심을 눈물너머 확인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쏟아내는 정이 수천만심장을 조정하고있다는것을 체감하였다.

돈으로 재단이 존재한다면 나라는 정치경륜으로 번성해간다. 이북을 투시해보면 해방조선에서부터 흘러온 근 70년세월의 자리길이 인간사랑으로 다져졌다는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원자탄보다 위력하다고 하는 일심단결을 이룬 《이민위천》의 사상에 기초하고있다. 따라서 선대수령들과 같은 좌우명을 지니시고 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정복》하신분께 매혹되는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분께서 지니신 사랑의 열원중 한 단면이였다.

인류정치사에는 백성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겠노라 뜻을 세우고 나섰다가 그것을 미지수로 남기고 사라진 정치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인류는 한 나라 국민이 흘리는 비애의 눈물이 닦아지고 그것이 의지로 바뀌지는 사실을 처음 목격하였다. 공식추대가 있기 전에 이미 그분을 자기들의 최고령도자로 결정한것은 북의 민심이였다.

그 민심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은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병사들, 근로자들이 최고령도자님을 만나뵈올때면 그분의 품에 얼굴을 묻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발을 동동 구르며 저마다 그이팔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 그분은 그렇게 싱갱이질하는 그들을 모두 뜨겁게 안아주신다. 언론이 이 광경을 나름대로 평할테지만 나는 이것을 도덕과 격식, 품위를 초월하는 가장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분에 대한 최고의 감정표현이라고 주장한다. 행성을 놀래웠던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2만여명 아이들과 청년절, 전승절경축 대표들,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이 터친 그분에 대한 무한한 열광에는 전국민적신뢰심의 순도가 집중적으로 표현되여있다.

민심은 천심이고 진리는 광명이라는것을 그분께로 향한 국민의 마음의 시각이 확증해주고있다. 지구상에는 이 느낌을 거세할 그 어떤 기구도 없다.

한길우에 엮어진 필수불가결의 3대진로

북이 혁명전기간 좌절이 없었다는것은 걸어온 길이 력사의 필연이였다는것을 증명해준다. 이북의 기적은 무수한 길중에 명확한 길, 성공에로 가는 길을 옳게 선택한 바로 여기에 있다.

1920대중엽, 혁명의 첫 자욱을 뗀 새 세대청년들은 교조와 사대를 견결히 배격하고 주체의 기치를 드신분을 령도의 중심에 모시였다. 그분이 바로 10대의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그분의 생애는 불우한 사람들을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울 의지를 지니신 때로부터 민족과 혈맥처럼 이어졌다. 그분께서는 스무해나 빙설천지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반일항전을 단행하시여 1905년에 가쯔라와 타프트의 밀약으로 초래된 일제강점을 종식하시고 고통과 질곡에서 헤매던이들이 주인이 된 세상-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였다.

어제날 머슴들은 수령의 하늘로 떠받들리우면서, 인민정권기관에 심복과 충복(그들은 일군들이다.)을 두고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면서 사회주의의 단맛을 체험하였다. 오늘 북주민들이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더욱 못 잊어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과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시기가 도래하여 자주의 터전을 뺏기느냐 고수하느냐 하는 때에 선군정치로 국민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셨기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사는 땅에는 나라의 자존을 지키고 국민을 살려주는이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가 죽어가고 840여만명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한해에 6만여명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없어 자퇴를 해도 관료들에겐 무관한 일이다. 그들에게는 야당《대선》후보들의 허물을 만들기 위한 모략과 국민의식을 마비시킬 기만공약이 최우선이였다. 더 슬픈 일은 침략의 기도를 가진 외세에 통수권까지 섬기고도 그것이 매국인줄 모르는것이다.

이남의 진보계가 지난 4월에 하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연설문에 주목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분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계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이라 명시하시였다. 결국 이북은 한치도 편차 없는 길을 가고있는것이다.

지난 백년대에 관통되여있고 새 백년대계를 펼칠수 있는 철학, 미증유의 시대를 이끌어왔고 비약의 세기를 담보하는 3대진로를 가진 최고령도자를 또다시 모신것은 행운중의 행운이라 아니할수 없다.

자주로 인간의 존엄을 알고 선군으로 민족의 존엄을 지켰으며 사회주의로 존엄높은 삶을 누려온 여기에 북의 리정표의 진리성이 있으며 자주와 선군과 사회주의의 불가분리성이 있다.

최고령도자님께서 언명하신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론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뿐인 진리의 길을 가는 이북민중에 의하여 현실화되고있다. 이남에서 두차례의 《선거》로 아비규환의 지겹고 숨가쁜 한해를 보낼 때 그들은 최고령도자님의 두리에 똘똘 뭉쳐 국방위원장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의리의 세월을 엮어왔다. 요컨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론은 최고령도자와 국민사이에 흐르는 정의 세기로 정립된 이북식론법이라는것을 이 해의 열두달이 증명하였다. 북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세워가고있는 최첨단공장들과 발전소들, 봉사쎈터들, 번모되는 거리들과 곳곳에 꾸려진 유원지들을 보면서, 제국주의자들이 독점적지위와 자본을 위해 주권국가들을 억누르며 몇ct의 금강석과 몇bbl의 유전을 놓고 감행하는 무고한 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보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분명한 차이를 느낀다.

이러함에도 진실을 가리려는 세력은 먼저 말한다. 그들이 언론을 매수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취약성》홍보에 돈을 탕진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면 그것은 진리라는것이다.

출중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최고령도자님께서 계시고 절대적지지를 받는 당이 있으며 그 누구에게 예속됨이 없이 제땅에서 자기의 리상을 실현해가는것을 긍지로 여기며 사는 이북민중이 부럽다. 진리를 찾지 못해 분신과 투신자살을 택하고 꽃나이에 승려가 되고 삭발을 하는 이남의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더욱 갈마든다.

가끔 네데를란드의 소박한 녀성의 말이 되새겨지군 한다.

《지금 이북 말고 어느 사회에 가서 순수한 참된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수 있는가. 이 아름다운 사회에 반하여 나는 이북지원사업을 신이 나서 해왔다. 이러한 사회가 붕괴되거나 개방되여 자본주의사회처럼 되면 인류의 미래는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제발 이북의 주체사회주의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주체의 대로우에 엮어진 필수불가결의 3대진로의 종착점은 어떤 곳일가. 락원의 대명사 에덴일가. 당연히 인간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부귀영화로운 나라일것이다.

이제는 게임이 아니다

2012년의 싸이버《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였다. 김일성주석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 그리고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예상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그 골자이다.

외곡프로그람의 코딩은 늘 그러하듯 미국이였다. 주석님탄생 100돐을 앞두고 북에서 인공지구위성이 발사되자 미국은 그 위성이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해친다는 요점을 언론에 흘렸다. 발사대를 가진 몇개의 나라와 위탁발사를 위주로 한 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70여개 나라가 위성을 쏴올려도 되지만 북의 위성은 《미싸일》이여서 안된다는것이다.

천만에!! 명백한 사실은 미국도 그 어느 나라도 미싸일기술을 리용하여 위성운반로케트를 만들어내고있다. 그러함에도 미국과 추종국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 발사때에는 《대포동-2》호, 이번에는 《장거리로케트》라는 신조어로 몰아붙였다.

주석님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최고령도자님의 연설과 막강한 무력시위를 본 사람이라면 북의 군력이 자위의 검과 방패라는것을 쉽게 알게 된다.

밖에서 보기에도 미국의 강권에 역스러워지는것은 미군산복합체와 독점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해 300여차의 전쟁을 하면서 피로 얼룩진 나라가 남에게 총 한방 쏘지 않은 신성한 나라에 거는 생트집이다. 특히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이 공개(세계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가진 네번째 나라)되자 주대없는 나라들을 규합하여 북의 존엄을 깎아내리고있는것이다.

미국이 왜 이러는가. 공정언론이라면 그 본심을 밝히는데서 견결해야 한다. 필자 역시 례외가 아니다.

당시의 정세는 미국에 있어서 탁상에서 고안할수 없는 기회였다. 목적실현의 명분이 생긴것이다. 지구상의 강력한 나라들이 있는 아시아를 아메리카합중국의 지배권에 넣기 위한 백악관의 계략이 좀처럼 잘 추진되지 않던 시기 조선의 위성을 《미싸일》로 몰아서라도 아시아의 《안보위기구실》을 만들어내는것이였다. 하여 미국은 자칭 국제헌병행세를 하며 북에서 주석님탄생 100돐경축행사를 진행하고있을 때 각종 정찰기, 정찰위성, 이지스구축함, 첨단추적레이다 등 미싸일방어체계까지 총동원하여 아시아에 포위환을 형성하였다. 즉 아시아의 몇mile앞까지 좁히는데 성공하였다.

아시아의 《안보위기》에 대한 첫 싸이버전쟁이 잦아든 시점에서 선명해지는것이 있다. 그것은 80여년전 주석님에 의해 선군사상이 창시된 때로부터 그 어떤 동란속에서도 북이 변함없이 추켜든 반제자주의 기치이다. 이제는 선군정치가 왜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으로 되는가와 북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반제자주를 포기하지 않은 리유를 알것 같다.

나는 미국이 몰아온 《안보위기》를 자위의 군력으로 가셔버리는것을 보면서 사회주의진지를 지키고있는 공화국과 이리처럼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지구상의 노다지들을 덮치고야마는 제국주주의와의 대결프로그람을 짜보았다.

답은 독자들에게 맡긴다.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반제자주를 필생의 원칙으로 지니신분께서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자본주의사회처럼 되면 인류의 미래는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제발 이북의 주체사회주의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주체의 대로우에 엮어진 필수불가결의 3대진로의 종착점은 어떤 곳일가. 락원의 대명사 에덴일가. 당연히 인간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부귀영화로운 나라일것이다.

이제는 게임이 아니다

2012년의 싸이버《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였다. 김일성주석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 그리고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예상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그 골자이다.

외곡프로그람의 코딩은 늘 그러하듯 미국이였다. 주석님탄생 100돐을 앞두고 북에서 인공지구위성이 발사되자 미국은 그 위성이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해친다는 요점을 언론에 흘렸다. 발사대를 가진 몇개의 나라와 위탁발사를 위주로 한 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70여개 나라가 위성을 쏴올려도 되지만 북의 위성은 《미싸일》이여서 안된다는것이다.

천만에!! 명백한 사실은 미국도 그 어느 나라도 미싸일기술을 리용하여 위성운반로케트를 만들어내고있다. 그러함에도 미국과 추종국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 발사때에는 《대포동-2》호, 이번에는 《장거리로케트》라는 신조어로 몰아붙였다.

주석님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최고령도자님의 연설과 막강한 무력시위를 본 사람이라면 북의 군력이 자위의 검과 방패라는것을 쉽게 알게 된다.

밖에서 보기에도 미국의 강권에 역스러워지는것은 미군산복합체와 독점자본가들을 살리기 위해 300여차의 전쟁을 하면서 피로 얼룩진 나라가 남에게 총 한방 쏘지 않은 신성한 나라에 거는 생트집이다. 특히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이 공개(세계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가진 네번째 나라)되자 주대없는 나라들을 규합하여 북의 존엄을 깎아내리고있는것이다.

미국이 왜 이러는가. 공정언론이라면 그 본심을 밝히는데서 견결해야 한다. 필자 역시 례외가 아니다.

당시의 정세는 미국에 있어서 탁상에서 고안할수 없는 기회였다. 목적실현의 명분이 생긴것이다. 지구상의 강력한 나라들이 있는 아시아를 아메리카합중국의 지배권에 넣기 위한 백악관의 계략이 좀처럼 잘 추진되지 않던 시기 조선의 위성을 《미싸일》로 몰아서라도 아시아의 《안보위기구실》을 만들어내는것이였다. 하여 미국은 자칭 국제헌병행세를 하며 북에서 주석님탄생 100돐경축행사를 진행하고있을 때 각종 정찰기, 정찰위성, 이지스구축함, 첨단추적레이다 등 미싸일방어체계까지 총동원하여 아시아에 포위환을 형성하였다. 즉 아시아의 몇mile앞까지 좁히는데 성공하였다.

아시아의 《안보위기》에 대한 첫 싸이버전쟁이 잦아든 시점에서 선명해지는것이 있다. 그것은 80여년전 주석님에 의해 선군사상이 창시된 때로부터 그 어떤 동란속에서도 북이 변함없이 추켜든 반제자주의 기치이다. 이제는 선군정치가 왜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으로 되는가와 북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반제자주를 포기하지 않은 리유를 알것 같다.

나는 미국이 몰아온 《안보위기》를 자위의 군력으로 가셔버리는것을 보면서 사회주의진지를 지키고있는 공화국과 이리처럼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지구상의 노다지들을 덮치고야마는 제국주주의와의 대결프로그람을 짜보았다.

답은 독자들에게 맡긴다.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반제자주를 필생의 원칙으로 지니신분께서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자본주의사회처럼 되면 인류의 미래는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제발 이북의 주체사회주의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세인이 다 아는것을 모르는 사람들

등록금이나 집값, 치료비를 모르는 나라가 있다는것을 뒤늦게 알게 된것은 필자의 무식을 드러내는것이자 언론의 수치이다. 이북에 대한 거짓선전의 효과라 어떤 나라는 쾌재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인류의 리상이 진리를 찾는것이기에 진리를 아는데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뿐이다.

정말 등록금없이 배울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이남의 《련합뉴스》에 의하면 어느 한 나라가 이북관광에 대한 글을 발표했더니 《그런 천국이 어디있냐.》며 반박했다고 하는데 그 사례가 바로 무료교육문제였다. 이북은 등록금없이 배우는 천국이라고 확언할수 있다.

정확한 례를 보자.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토의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의 첫 조항에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여있다.

북은 이미 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 또 2년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로 되면서 무료교육제를 실시하였다. 아이들이 11년간 무료의무교육을 받아온것만도 놀라운데 1년 더 늘어 12년이라니 실로 경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북은 부유한 나라가 아니다. 아직은 어려움도 있다. 하지만 50여년간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고있을뿐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국책이라고 한다. 대학과 박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기관에 등록금이 없고 곳곳에 있는 과외교양기지에서도 청소년들이 무료로 재능을 익힌다. 깊은 산골, 외진 섬마을 그 어디에 살아도 통학렬차, 통학뻐스, 통학배가 있어 아이들은 누구나 무료의무교육의 혜택을 입고있다.

그러나 나는 상반되는 현실에 살고있다. 《국회의원》선거의 날에 《4월 11일은 반값등록금 실현하는 날》이라 요구하는 대학생 대규모집회가 열리고 등록금때문에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가 하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고 처녀들이 삭발투쟁을 멈추지 않고있다.

이남의 한해 등록금이 천만원이라는것을 알게 된다면 북주민들은 무엇을 생각할가. 분명 등록금을 모르는 나라를 건설하고 빛내여오신 선대수령들과 그 뜻을 그대로 이어가고계시는분에 대해 생각할것이다.

그들은 집값도 모른다. 정말 모른다는것을 인터네트를 통해 확증하였다. 지난해 9월 최고령도자님께서 부인과 함께 평양 중심부에 자리잡은 창전거리살림집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시였다는 소식은 원자탄을 쏜것만큼이나 충격적이였다. 사실 이 집은 국가로부터 거저 받은 집이였기때문이였다.

리해할수 없는것은 그렇게 훌륭한 주택을 평범한 로동자들이 무상으로 쓰고 산다는것과 최고령도자님께서 세간살이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이였다. 낳아준 부모보다 먼저 찾아가시여 새집들이 기쁨을 나누시고 집집의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그분의 모습이 참으로 눈부시게 어려온다.

필자도 세방에서 산다. 거리에서 방황하는 미국의 1 600만아이들에 못지않게 이남에도 거주를 못하는 《서울역집들이》가 끊기지 않고 800여만사람들이 집없이 헤매고있다. 주택부자 10명이 가진 수백만US$의 집이 5 000여채에 이를 때 철거의 폭력에도 떠나지 못한 이들은 영영 지하에 잠드는 길을 택하고있다. 그들이 창전거리새집들이를 보았다면 무엇을 생각할가. 필자는 꿈에서나마 최고령도자님께서 부어주시던 축배와 부인께서 손수 지어 근로자들에게 맛보이신 그 음식의 진맛을 상상해보군 한다.

그들은 치료비가 얼마인지 아는가? 1952년부터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으니 새 세대들은 치료비란 말을 모른다. 누구나 태여나면 호담당의사들이 건강을 책임져주고있고 일단 병이 나면 무료로 치료받는다.

지난해 11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찾으신 최고령도자님의 모습이 종종 떠오른다. 그분은 어머니들의 어머니다운 모습이시였다. 국방위원장님께서 발기하시여 건설되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전국의 녀성들을 위한 종합의료봉사기지, 과학연구기지로 꾸리도록 하시기 위해 지성을 바쳐오신 그분의 모습을 보니 수십만원의 해산비로 고통받는 이남의 녀성들, 삼성전자의 피해로 병이 난 딸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간 그 어머니생각으로 마음이 쓰리다.

등록금, 집값, 치료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반대의 경우를 납득시킨다는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면 자본주의제도는 돈의 함수가 곧 결과이기때문이다. 돈때문에 살고죽는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국가의 혜택으로 평등하게 사는 사람들과의 인식상차이는 필연적인것이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동경은 막을수 없다. 이제는 《가난에 쪼들린 사람들과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던 《자유의 녀신》의 유혹이 시효가 된것같다. 평생 사랑을 설교하던 미국의 빌 그라함목사는 이북방문인상기에서 인류가 바라던 리상사회를 알려거든 조선에 가보라고 밝혔다.

이것은 경전이 아니라 현실에서 찾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설교이다. 바로 북의 시책이 국민에 대한 사랑의 리념에 기초한것으로서 마침내는 모두가 참된 사랑을 나누며 순결한 인간으로 살아가고있는데 대한 격찬이 아닐가.

북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해 12월 12일 북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우주에 쏴올렸다. 8개월전에 나타난 결함을 분석하고 정밀도를 개선하여 운반로케트 《은하—3》으로 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북은 평화적우주리용기술의 종심에 확고히 다가섰다.

《자주민보》 12월 14일부에 게재된 《인류 최초로케트와 위대한 우리 민족》이라는 글에는 《지금까지 세계는 미국의 눈을 속일수 없었지만 북의 위성발사성공으로 세계경찰임을 자처하던 미국의 〈신화〉는 깨여지고 북은 명실공히 새로운 우주강자로 발돋움했다. 반만년력사에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서술되여있다.

바로 그 〈신화〉를 깬것이 100% 북의 지혜와 기술, 힘이라는 생각에 자못 마음이 부푼다. 사실 그 말을 당당히 할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 미국도 인공지구위성의 핵심을 수입한다고 했다.

《미싸일》론자들의 랑설을 산산 쪼각내며 국궤도를 돌고있는 위성으로 짚어보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북의 진정한 힘을 아직 모른다는것이다. 이 시각도 오만한 나라들이 꾸며대는 구설수의 요점은 경제생활이 어려운데 왜 위성을 쏘느냐이다. 하다면 북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이미 그들은 백번 허리띠를 졸라매도 위성제작 및 발사국이 되려는 의지를 꺾지 않겠다고 했었다. 위성과 바꾼 한순간의 만족한 생활로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과 약소민족의 설음을 절대로 씻어내지 못한다는것이 그들의 잠재의식이다.

눈물의 바다에서 우주로! 령도자를 잃고 가슴치던 사람들이 김일성주석님 탄생 100돐에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릴데 대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유훈을 끝끝내 실현한 힘의 기본은 일반력학관계로 설명할수 없는 초인간적힘 즉 정신력이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는 그야말로 자립경제에 대한 증명이고 정신력에 대한 정답이며 진리에 대한 응변이였다.

이런 나라에 힘의 비등식을 강요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진행한 2012년의 인물을 선정하는 온라인투표에서 압도적표수의 제1위가 최고령도자님이시였는데 만약 한발 더 나가 자기와 같지 않으면 적이라는 독설적기준에 《NO》를 해보라. 그러면 네티즌들은 그 신비한 힘의 비결을 알아내지 않을가싶다.

북의 정신력은 어디에 시원을 두고있을가. 그런 눈으로 고찰하여 읽어본것이 최고령도자님의 저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였다. 여기에는 위성발사뿐아니라 모든것을 가능케 하는 정신력의 뿌리가 설명되여있었다.

김정일애국주의, 이 일곱글자에 국방위원장님의 한생이 비껴있다. 그분의 인생을 특징짓는 인민행렬차와 야전복, 주민들이 사는 곳마다 공간없이 밝으신 현지지도자욱들, 선군길에 겪으신 고행의 언덕과 부강조국건설을 진두지휘하시던 그분의 헌신적모습이 보여온다. 하기에 최고령도자님께서는 그 본질적내용으로 보나 생활력으로 보나 김정일애국주의는 오직 국방위원장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다고 하신것이다.

필자가 그 저작을 읽을 때의 심경도 충격적이였는데 그분의 휘하에서 뼈대를 굳힌 국민들은 어떻게 느껴졌을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되였을 가능성이 높다. 평시에 그분의 애국적한생에 마음적시던 국민들에게는 그 단어가 메가톤급힘으로 폭발하게 될 투신과 헌신, 열정의 점화가 아닐수 없다. 돈의 매개물인 소신으로 진리가 담긴 좌우명을 론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지만 결론은 김정일애국주의는 위인의 한생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결합일뿐아니라 그 종심과 생명력에 있어서 무한대하다는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애국주의가 삶의 등대, 라침판으로 되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발전만이 아닌 기적을 필요로 하고 발전된 나라만이 아닌 부귀영화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북의 목표에 걸맞는 그 이상의 추동력은 없을것 같다.

북주민들은 슬픔을 이겨내면서 그 마음을 싹틔워 자기 집뜰, 자기 마을, 자기 고향을 가꾸고 공장들을 개건하였으며 모든 부문에 걸쳐 CNC화를 다그쳤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발사로 인터네트에 도배된 적대세력의 비난의 글들을 초기화시키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해력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그 힘이라면 6.15와 10.4선언의 리행도 먼 래일의것이 아니다. 최고령도자님의 저작에 밝혀져있듯이 온 민족이 그분의 명언을 깊이 새기고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들어야 한다. 그뜻으로 뭉치면 민족이 일구월심 바라던 통일을 이루고 그 뜻을 버리면 《한》반도의 절반을 외세에 빼앗기게 된다는 여기에 국방위원장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리념이 진리의 대강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전진하는 이북에 과연 두려운것이 있을가. 이런 나라에 대한 훼방은 계란으로 바위까기이며 이런 나라를 상대로 한 《전략적인내》는 전반적몰락으로 바뀐다는것을 빨리 알아야 한다.

이북민중의 마음에 김정일애국주의가 간직되여있어 행성의 장엄한 지각변동이 기대된다. 미국의 CNN방송이 개선청년공원을 현지보도하면서 《당신들의 눈이 잘못된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주의북조선입니다.》라고 서두를 뗐듯이 수십억시청자들은 미구에 이 말을 자주 듣게 될것이다.

세상에 진리로 뭉쳐진 힘보다 더 큰 힘은 없다. 만능의 힘의 추진력인 김정일애국주의로 큰 걸음을 뗀 북의 2012년은 보다 약동할 2013년에 계주봉을 넘겼다.

시묶음

통일강성국가는 삼천리에 일떠서리라

감격속에 안으리라 통일조국

박 철

사랑하는 남녘의 겨레여
새해의 첫아침 뵈웠으리라
그리운 동포형제 여러분!
정을 담아 그대들을 부르시며
신년사를 하시는 원수님모습

우러러 가슴설레였으리라
해마다 새해의 아침이면
남녘의 그대들도 한품에 안고
뜻깊은 신년사를 하시던 수령님
그 인자하신 모습 뵈옵는것 같아

자애가 넘치는 그이 영상에서
6.15와 10.4선언을 마련하시고
장군님 만면에 담으셨던 미소
그 동포애를 다시 안아보며
목메였으리라 크나큰 격정에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라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라고…

민족의 앞날 통일의 진로를 밝혀
그리도 열정적으로 하시는 연설
아, 그것은 수령님처럼 장군님처럼
남녘과 해외 온 겨레에게 주시는
그이 심장의 정과 열애 아니였던가

새해의 빛나는 태양과도 같은
뜨거운 그 정 통일의 그 열원
눈덮인 백두에서 눈덮인 한나까지
일시에 삼천리강토에
통일환희의 봄바람 일으켰나니

반통일의 모든 광풍
그이 민족애의 열기로 불태우시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까지 합쳐
동포형제들의 가슴에 부어주시여
온 민족을 통일의 길로 뭉쳐세우시리

아, 넓으나넓은 한품에
그리도 열렬하게 7천만을 안으시고
2013년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우에
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서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불러 목메이는 남녘의 겨레여
우리모두 원수님과 함께 가자
그러면 민족의 어버이이신 그이
절세의 애국자이신 그이
원수님 일떠세우시는 통일조국
아, 눈물젖은 한가슴에 안으리라!

새해의 하늘은 맑다

김태룡

맑고 푸르른 하늘아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것이
겨레의 소원이라면
원수님은 그 소원 담아주시였구나
2013년 뜻깊은 신년사에

사랑하는 겨레를 마주하신듯
한없는 정에 넘치시여
통일의 경륜을 펼쳐주시는 그이
겨레의 가슴 충격과 감동에 높뛴다
아, 김정은원수님

격정에 겨워 우러르는 그 모습은
쓰라린 분렬의 아픔 가시려
판문점으로 결연히 나서시던 모습
짙게 드리운 전운을 가시려
최전방 섬초소에 오르시던 그 날의 모습

그이는 연단에 서계시였어도
판문점의 그날처럼
최전방을 찾으셨던 그때처럼
민족수호의 최진두에 서계심을
가슴뜨거이 겨레는 보았거니

지난 5년세월은 말하지 않는가
대결의 불구름이 하늘에 떠있는 한
언제가도 통일을 이룰수 없다는것을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오직 전쟁뿐이라는것을

불과 불이 서로 오가는
그 비극 그 수치를
어찌 이해에도 이을수 있으랴
전쟁의 도화선을 끊어버리듯
끝장내야 할 대결의 세월이다

겨레여 신년사의 글발
통일애국의 불길로 안아

통일해발 찬란하다

리송일

분렬된 삼천리 이 강토에
통일해발 찬란하여라
새해의 첫아침
온 겨레를 6.15와 10.4에로 부르시는
원수님의 신년사 구절구절이여

생각만 해도 가슴설레여라
대결과 불신의 칼바람 몰아내고
민족의 간절한 소원우에
그이 높이 드신
6.15와 10.4선언의 그 기치

그것이 있어
우리 민족끼리시대를 펼치고
둘로 살던 우리 겨레 하나되고
그것이 있어
북과 남이 한마음으로
평화번영의 넓은 길 열어왔나니

얼마나 고마우신가
드리운 전쟁의 구름 태워버리자
원수님의 높은 뜻으로
푸르게 열어갈 하늘아래
화해와 단합의 화원 가꾸어가자

오, 우리의 원수님 계시여
그 누구도 흐리지 못할
푸른 하늘아래 겨레는 살려니
통일의 려명을 비껴안은
새해의 하늘은 맑다
삼천리의 하늘은 언제나 푸르리라

통일조국을 본다

리철준

넘치는 통일의 열망이
민족번영의 간절한 기대가
저 하늘에 닿았는가
춤을 추며 내리는 하얀 설눈도
겨레의 앞날을 축복하는 새해의 이 아침

7천만의 가슴을 두드린다
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라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제 원수님 6.15를 꽃펴주시여
새롭게 펼쳐질 민족단합의 세월속에
그때처럼 혈육의 정 뜨겁게 넘치리

금강산엔 통일함성 다시 메아리치고
서해어장에 평화의 푸른 물결 출렁이리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겨레의 대하는 용용히 굽이치고
백두와 한나엔 통일기 나붓기리라

아, 김정은원수님
겨레의 앞길에 펼쳐주신 통일 해발아래
6.15가 온다 10.4가 온다
그 통일대강, 평화번영의 리정표따라
삼천리강토에 통일이 온다!

통일조국을 본다

리철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고
겨레의 앞길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 구절구절이

민족구성원 한사람한사람에게
자신의 진정을 터놓으시듯
자애로운 모습 열정넘친 음성으로
그이 남녘과 해외
온 겨레의 심장 뜨겁게 울리셨나니

갈라져 사는 혈육들의 아픔
하루빨리 씻어주실
동포애의 그 정 가슴마다 넘치여라
한피줄을 나눈 사람들
그리도 따뜻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
온 겨레의 눈굽을 젖게 하여라

오, 헤여져 사는 원한과 비극이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뼈저린지
우리 겨레 아니고선 알수 없기에
민족의 념원 한몸에 안으신 그이
새해아침을 통일을 향해 열으셨거니

겨레여
꿈에도 통일을 안고 사는 겨레여
우리 그이의 숭고한 뜻
피더운 가슴가슴에 새기고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그 길에 떨쳐나서자

단합은 힘이고 분렬은 파멸
이 땅 삼천리가 우리 민족의것이듯
이 땅 삼천리에 안아올 통일도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아, 새해의 이 아침
7천만 우리 겨레 신심에 넘쳐
새해의 앞날을 바라본다
김정은원수님의 손길따라 펼쳐질
우리 민족끼리 날과 달을 본다
일떠서는 통일조국을 본다

21세기 령도자 김정은장군

—탄생일을 경축하여 올리는 노래—

무한한 우주공간
푸른 하늘 은하에서는
위대하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송가
온 세상에 울려퍼지고

2013년 1월 1일
백두산민족 의사당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
인류자주위업의 송가
전세계에 울려퍼진다

세계가 칭송하는 선군정치
세계가 인정하는 주체사상
세계가 신뢰하는 도덕의리
세계가 우러르는 자주조선
세계가 탄복하는 첨단과학

나이를 떠나
민족을 떠나
나라와 리념을 떠나
세계의 정의와 진보가 선정한 1등
21세기 령도자 김정은장군

세계가 축하하는
김정은 백두산강국 최고사령관
이 세상에 온 력사의 1월 8일
존재자체가 사랑인 당신
탄생자체가 축복인 당신

우리 통일겨레들이 엮은
마음의 꽃다발에
흠모의 정을 담아
축하의 인사 올리는
통일조국의 구성 탄생일

소리없는 여울에
젖어드는 마음들이
백두조선의 영광을
통일조국의 무궁을
온 세상에 노래하누나

리 준 식(재도이칠란드동포)

애국애족의 기치

2013년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신년사를 하셨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에게 가정의 화목과 더 큰 행복을 축원하는 따뜻한 인사와 아울러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추동할 과제들을 밝히셨다.

그이의 신년사는 나라와 민족앞에 신년의 진로를 밝힌 시정연설이고 애국의 열기를 북돋아주는 격려사이기도 하다.

신년사의 구절구절마다에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전도에 대한 시대적, 민족사적 사명감을 지니신 령도자의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가 맥박치고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전선시찰의 선군장정,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걸으시는 그이의 위인적풍모는 민족의 마음속에 절세의 애국자의 모습으로 빛나고있다.

한평생 애국애족애민헌신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수행하시며 그이의 발걸음에 자신의 발걸음을 함께 하신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도 시련을 겪는 조국, 허리띠를 조이는 인민과 언제나 운명을 함께 하셨다.

놀라운 전변과 기적적사변들은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대적충성과 조국수호, 인민사랑을 신념으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가 안아온것이다.

그이의 위인상에 대해 《민족통신》 로길남특파원을 비롯하여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들은 한결같이 모습을 방불케 했다고 감동을 토로했다. 최성정재로동포는 김정은령도자께서 계시여 우리 동포들의 마음은 든든하다고 했다.

따뜻한 인정미를 지니신 원수님의 사랑은 민족애를 안고 사는 동포들모두에게 뜨겁게 미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민족애는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민족을 사랑하고 포섭하는 광폭의 도량과 친화력이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남녘과 해외의 동포들이 있다. 새해 첫아침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에 대한 열망과 기대속에 새해를 맞이하고있는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신것은 원수님의 숭고한 동포애의 표시이다.

그이께서는 신년사에서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 리행하며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밀에 자주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문제들을 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과업으로 제시하셨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는것은 그이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나아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며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데 대한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는 백두에서 한나까지 온 겨레에게 새해의 희망과 더불어 통일강성국가의 지름길을 환히 밝혀주는 애국애족의 기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시며

《통일이 언제 됩니까?》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주체89(2000)년 8월 평양을 방문한 남측언론사대표단의 한 동포가 드린 질문이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그건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어떻게 합치는가에 따라서 통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는 문제라고 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자각을 불러일으켜주고 통일의 근본열쇠를 안겨주시는 천금같이 귀중한 가르치심이였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1972년 7월 4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조국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그리하여 조국통일운동이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기치밀에 전진하게 되였으며 북남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였다.

6.15자주통일시대에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평양과 금강산, 서울, 제주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통일의 함성높이 민족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끊어졌던 철길과 도로가 다시 이어지고 남녘의 동포들이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관광하는 사변들도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민족끼리, 이는 오늘도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온 겨레를 애국애족의 길, 민족단합과 통일의 길로 이끌어주시는분은 바로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새해 2013년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고,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뜨거운 민족애와 통일념원이 넘쳐나는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되새기며 온 겨레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대단결사상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또 한분의 위대한 민족의 령수를 통일위업의 진두에 높이 모신것으로 하여 끝없는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지름길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 새해벽두부터 한해의 앞길이 환히 내다보여 희망차다. 전체 인민에게 보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는 사람들의 애국열의에 무한한 활력을 주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며 첨단돌파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고 하시였다.

간단명료하나 참으로 심오한 철리가 담긴 말씀이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해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우되게 된다. 국력경쟁이 치렬한 오늘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중요하게 최첨단돌파에 달려있다.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것은 원수님의 원대한 애국의 구상이다. 그이께서는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드팀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과학부문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여야 한다고,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과학기술로 살아가는 현시대에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세기를 주름잡아 도약해나가야 한다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고무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첨단돌파사상과 과학기술중시령도에 의해 지난해에도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4대선행부문과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중요부문들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져 공작기계를 비롯한 생산설비들의 CNC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200여개 대상의 중요생산공정이 현대화되였으며 근 100개의 단위들이 통합생산체계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하였다.

더우기 모든것이 국산화된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우주를 나는 경이적인 사변이 펼쳐짐으로써 조선의 지적 및 경제적잠재력이 만방에 과시되고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에서 실용위성의 성과적발사는 세계적인 최첨단과학기술의 힘으로 이 땅우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령도자의 확고한 의지,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는 우주과학기술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위성과 운반로케트의 보유를 강성국가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신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에 의해 우주정복의 길에서 실용위성제작과 발사에로 도약하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된것이다.

첨단돌파에 지식경제강국,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CNC기술의 명맥을 틀어쥔 나라로 그 면모를 일신한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위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이며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강령적 지침이다. 여기에는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학자들처럼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는 뜻이 어려있다.

령도자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과학기술중시의 령도따라 과학기술발전을 생명선으로 하여 최첨단돌파열풍을 더 파감히 일으키는데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공화국은 실천으로 증명하고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가 온 나라에 기발처럼 나붓기며 사람들을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첨단돌파에 최강의 국력이 있고 민족의 존엄과 미래가 있다는것을 시대적부름으로 새겨주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CNC공작기계들이 줄지어 늘어선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

새해 2013년을 맞은 지금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조국통일, 이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간곡한 유훈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시였다.

오늘도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뵈올 때면 생전에 조국통일을 두고, 남녘겨레들을 두고 늘 마음을 써오시던 그이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추억속에 어려온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마련하시고 전민족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시여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시였다.

분렬의 력사가 깊어가고있다고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남녘동포들에게 조국개선의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조국통일의 인사도 겸해서 해야겠다고 하신 수령님의 절절한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 겨레의 귀전에 메아리치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비롯한 통일위업실현의 근본원칙과 그 실현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전민족을 통일애국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던 수령님의 그 애국헌신의 로고를 우리 겨레 모두는 잊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그이에 대한 숭배와 경모심을 금치 못하며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는 인터네트홈페지에서 《김일성주석은 분렬된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을 한몸에 맡아안고 평생을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였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한몸을 다 바쳤다. 조국통일은 주석의 평생의 념원이며 동시에 7천만겨레에게 남긴 고귀한 유훈이다.》라고 격정의 목소리를 터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높이 받드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여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조국을 기어이 통일함으로써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을 풀어드리고 분렬의 고통속에 신음하는 우리 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려는 철석의 의지를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우리 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였다.

조국통일3대헌장의 정식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추호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관철하시려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의 선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정치실력, 확고한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여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였다. 진정 경애하는 장군님은 분렬의 고통속에 신음하는 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려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민족의 어버이, 통일의 구성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은 우리 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이며 절세위인들께서 마련해주신 통일애국력량과 6.15통일시대의 고귀한 전통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실현의 튼튼한 밑천이다.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실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따뜻이 품에 안아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통일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여 조국통일위업은 머지않아 반드시 실현되고야말것이다.

리 어 금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오시여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년륜을 새기며 새해가 밝아왔다.

우리 겨레의 가슴 가슴은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할 불타는 신심에 넘쳐있다.

돌이켜보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발표로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지가 안아온 결정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분렬로 우리 겨레가 겪는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조국이 통일되여 북반부인민들이 한나산 백록담에도 올라가보고 남반부인민들이 백두산천지에도 올라가보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그토록 절절하게 말씀하신 장군님이시였다.

조국통일을 우리 대에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그이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과 민족분렬의 상징인 판문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도 력력히 새겨져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갈수 있다는 그이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에 떠받들려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진행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게 되였다. 그에 이어 2007년에는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남관계와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자주통일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6.15시대에 북과 남사이에는 계층별 통일대회들과 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한 민족의 대회합잔치들이 성대히 진행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고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다.

한없이 숭고한 인덕으로 남녘의 각당, 각파, 각계인사들과 허물없이 만나시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고 민족문제해결에서 지침으로 되는 고귀한 가르치심과 명쾌한 해답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은 오늘도 우리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진정 6.15통일시대는 북과 남이 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친다면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할수 있다는 것을 진리로 체득하게 해준 의의깊은 나날들이였다.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통일의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것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수많은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인사들은 두차례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으로 6.15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칭송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받들어나가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철석의 의지이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민족의 앞날은 언제나 밝고 창창하다.

해내외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들의 기치높이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라 광 철

← 판문점에 건립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통일친필비

‖ 통 일 애 국 의 한 길 로 ‖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 더더욱 깊이 새겨지고있다.

언제나 남조선동포들을 생각하시며

주체35(1946)년 1월초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며칠전에 접견하시였던 서울신문사 기자들을 또다시 만나주시였다.

몸소 그들을 저택에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점심식사도 권하시고 그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비록 서울에 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남조선동포들에게 가있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는것을 꼭 전해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시며

주체61(1972)년 5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 기자들을 만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제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과의 관계문제, 조선의 통일문제와 그를 위해 공화국이 취하고있는 실제적인 조치들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하고도 명백한 대답을 주시였다.

이어 미국의 언론인들이 수령님께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말씀올렸을 때 그이께서는 그것은 조국의 통일이라고, 우리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였다.

통일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주체82(1993)년 3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한 재미동포들을 친히 만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대한 과업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을 통일하여야 우리 민족은 분렬로 인한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킨다면 민족의 대단결은 능히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분렬의 상징을 통일의 상징으로

오늘도 력사의 땅 판문점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 조국통일관계문건을 보아주시고 남기신 불멸의 친필이 천연화강석에 새겨져 빛나고있다.

《김 일 성
1994. 7. 7.》

불과 아홉글자밖에 안되는 이 친필에는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수령님의 거룩하고 영원불멸할 업적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간직하고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11월 24일, 분계선이 지척에 보이는 판문점을 찾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세워진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친필비앞에 서니 생각되는것이 많다고, 수령님의 한생은 통일을 위한 한생이였다고 하시면서 이 력사적인 친필에는 수령님의 강의한 통일의지와 신념이 함축되여있고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님의 뜻대로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시려는것이 자신의 결심이고 확고한 의지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모두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이 통일운동의 변함없는 지침으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해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발표되게 되였으며 겨레의 통일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평양과 서울 등 여러곳에서 민족통일대축전을 비롯한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열리고 끊어졌던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리는 등 6.15시대에 펼쳐진 격동적인 사변들은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지난해 3월 판문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체취와 심장의 박동이 그대로 어려오는 친필비의 글발을 한글자, 한글자 주의깊게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였다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존함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로 흐르는 공기마저 팽팽한 최전방의 판문각로대에 오르시여 적정을 료해하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내외반통일세력에 대한 서리발치는 분노가 비발치고 민족분렬의 력사를 영원히 끝장낼 굳은 의지가 비껴있었다.

적아간의 총부리가 항시적으로 마주하고있는 최대의 열점지역인 최전연을 찾으신 그이의 거룩한 모습에서 온 겨레는 또 한분의 백두령장의 불변의 통일의지, 담력과 배짱을 보았고 조국통일의 그날을 확신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오늘 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난관이 조성되고있지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전진해나가는 겨레의 통일대하를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한 영 수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진 때로부터 70년이 가까와온다.

한강토에서 오랜 세월 한 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분렬을 초래한 장본인은 미국이다.

우리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한 미국은 나라와 민족을 북과 남으로 갈라놓고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때부터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외세에 인한 민족의 분렬이 세기를 이어 근 70년이나 지속되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비극이다.

비록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해오고있지만 우리 민족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의 민족이다. 그 무엇도 민족의 리익보다 우선시될수 없으며 민족적공통성보다 클수 없다.

력대로 사대와 매국을 일삼아온 남조선의 보수《정권》들은 외세를 등에 업고 통일의 앞길에 장애만을 조성하여왔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은 외세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의 손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나온 력사가 보여준 교훈인 동시에 6.15시대가 보여준 진리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그 직접적담당자는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우리 겨레는 6.15자주통일시대의 산체험을 통하여 조국통일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사활적문제이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능히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내외반통일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은 결코 막을수 없다.

조국통일은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다.

애국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투쟁에 한몸 바치는것이야말로 최대의 애국이다. 그가 누구이든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고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온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에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할수 있는 길이 있다.

해내외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면 민족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본사기자 최 명 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갈 열의에 넘쳐있는 해외동포들

4자성어로 보는 5년

해마다 년말이 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신문, 방송 등은 인터네트공모와 현상응모, 추첨 등을 통해 그해의 정치정세를 특징짓는 10대국제뉴스, 10대국내뉴스 등을 발표하는것을 하나의 추세로 하고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인지 남조선의 《교수신문》은 해마다 년말이면 이름있는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그해 정치정세를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4자성어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그렇다면 지난해 남조선에서 선정된 4자성어는 무엇인가.

600여명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교수신문》의 4자성어는 《거세개탁》(들거, 세상 세, 다 개, 흐릴 탁)이다.

중국 초나라시기 사람이였던 굴원이 지은 《어부사》라는 글에 실린 고사성어의 하나인 《거세개탁》은 《온 세상이 모두 탁해 지위의 높고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바르지 않아 홀로 깨여있기 힘들다.》라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2012년 남조선정치정세를 특징짓는 4자성어로 《거세개탁》이 선정된데 대하여 《혼탁한 사회가 위정자의 자성을 요구하고있기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결코 틀린 표현이 아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대선》이 진행되였다. 이를 계기로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보수《정권》의 연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보수세력은 내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라는 무지한 관념밑에 새것을 지향하는 진보개혁세력들을 《종북좌파》라고 몰아붙이면서 그 어느때보다 더 극심한 《색갈》소동을 벌리였다. 결과 지난해 남조선사회는 리념대결, 세대대결, 1% 가진자와 99% 못 가진자의 대결 등으로 정치정세가 혼탁되고 불신과 대립이 더욱 격화되였다. 이것을 반영하여 《교수신문》은 지난해의 4자성어로 《거세개탁》을 선정하였던것이다.

주목되는것은 《교수신문》이 발표한 4자성어들이 대체적으로 지난 시기 남조선정치정세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표현했다는것이 정세분석가들이 평가이다.

현 리명박《정권》이 들어선 지난 5년간을 《교수신문》이 4자성어로 표현한것을 보면 그것이 십분 리해된다.

2008년 현 리명박《정권》이 등장한 첫해 《교수신문》은 《호질기의》(문제점을 감추려고만 하고 그것을 토론이나 조정 등을 통해 풀려고 하지 않는다.)로 선정하였다. 이것을 설정한 리유는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다.

2008년 막을 올린 리명박《정권》은 친미사대굴종에 사로잡혀 위험물질이 많은 미국산 소고기를 끌어들이였다. 이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거족적인 항의투쟁이 벌어지자 당황한 보수집권세력은 《대국민사과》놀음을 벌려놓고 인민들을 기만하였는가 하면 나중에는 미국산 소고기가 《국민건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우겨대며 수입을 계속 강행하였다. 지어는 초보적인 생명안전을 위해 항의투쟁에 나선 남녀로소는 물론 애기어머니들까지 탄압하는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러니 남조선의 《교수신문》이 2008년의 4자성어로 《호질기의》를 선정한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라 하겠다.

이뿐이 아니다.

2009년 새해벽두부터 룡산철거민들을 불태워죽인 리명박《정권》을 단죄하여 《교수신문》은 이해 4자성어로 《방기곡경》(바른 길을 쫓아서 정당하고 순탄하게 일을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을 선정하였고 2010년에는 모략적인 《천안》호 사건에 북을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그 범죄적진상이 폭로될것이 두려워 대대적인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린것을 야유하여 《장두노미》(말로 감추는것이 많아 들장날가봐 전전긍긍한다.)로 규정하였다.

2011년에는 인민들의 강력한 비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그해가 다 저물어가는 11월에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켜 《엄이도종》(자기가 한 일이 잘못되였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비판을 두려워한다.)으로 지정되였다. 그리고 우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거세개탁》이 설정되였다.

한마디로 지난 5년간의 4자성어들은 리명박《정권》이 민심의 요구에는 귀를 틀어막은채 오만과 독선, 독단을 부리면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서민정책과 같은 반인민적, 반민주주의적인 정치에 매달려왔다는것을 적라라하게 폭로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요구에 역행하여 뒤로만 질주하며 모든것을 파피하고 짓밟는 리명박《정권》에게 《미친 불도젤》이라는 별명을 이미전에 달아준것도 결코 우연한것으로만 볼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인민적인 《정권》이 사라질 날도 머칠 남지 않았다.

본사기자 김응철

산송장의 ≪치적≫ 자랑

얼마전 청와대가 《리명박정부국정성과》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리명박《정부》 5년간의 《성과》를 묶은것이라는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허위와 날조, 자화자찬으로 되여있어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특히 북남관계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내용들로 일관되여있어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고있다.

보고서에서 리명박《정부》가 북에 대한 현금지원을 축소하고 이전 《정부》처럼 《선의에 의존하는 굴욕적인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평화결정권》과 《남북관계주도권》을 회복하며 원칙에 립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한것을 《성과》로 꼽은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리명박일당만이 내들수 있는 해괴한 주장이다.

리명박집권 5년간 북남관계에서 그 무슨 성과라고 할만 한것이 꼬물만큼도 없다는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있다면 6.15시대와 더불어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후퇴시켜 동족사이에 대결과 불신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에 전쟁위험만을 조성한것뿐이다.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비핵, 개방, 3 000》과 같은 반북대결적이고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하면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그 무슨 《국민정서》와 《검토》를 운운하면서 온 민족이 한결같이 지지찬동해마지 않는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그 리행을 한사코 거부해나선것이 바로 리명박보수당국이다.

어디 그뿐인가.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동족이 벌리는 축제들을 비방중상하였는가 하면 《천안》호침몰과 같은 특대형모략사건을 조작하여 반북대결분위기조성에 광분해왔다. 민족화해와 단합의 옥동자로 불리우며 10년가까이 진행되여오던 금강산관광을 전면중단시키고 민간단체들의 접촉과 래왕마저 차단시킨것 등 리명박당국이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간 죄악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그런데 북남관계를 백척간두로 내몰고도 그것을 큰 《성과》라고 벅적대고있으니 리명박당국이야말로 정신착란증에 걸린 희세의 반통일무리, 극악한 반민족범죄집단이 분명하다.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 산송장과도 같은 처지에 있는 리명박일당이 그 무슨 《한반도평화결정권》이니, 《남북관계주도권》이니 하며 희떱게 놀아대는것은 어떻게 하나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는 한편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다음 《정권》에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것은 반통일정신병자들의 가소로운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대세를 바로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민심에 역행하는 반북대결적이고 반통일적인 정책을 답습하려 하지 않을것이다.

박철남

평화를 바라며 잠들지 못하는 제주도

2013년이 밝아왔다. 그런데 새해의 기쁨과 희망이 모두 좌절된채 남조선의 제주도에서는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는 군부와 이를 반대하는 이곳 주민들의 시위, 롱성투쟁으로 새해벽두부터 팽팽한 분위기가 감돌고있다.

주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것은 제주해군기지의 예산집행을 잠정보류하는 《국회》예산안이 통과되였으나 강정마을 현장에서는 기지건설공사가 강행되고있는것이다.

2일 오전 6시경 공사차량들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공사현장에 들어가자 이를 목격한 마을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이 강정마을회에 알려 비상싸이렌을 울렸다. 이로써 항의시위와 공사차량들의 진입을 막는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서 폭력으로 이를 저지시켰다.

이에 분격한 주민들이 합의한 부대조건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검증과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나아가 검증결과에 따라 《건설계획자체를 백지화하여야 할것》이라고 강력히 대응하면서 분위기는 더더욱 살벌해지고있다.

제주해군기지의 예산집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번 일들은 철저히 거짓과 폭력으로 민심을 기만하는 현 《정부》에 대한 반발인 동시에 전쟁과 파괴, 침략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항거의 산물이다.

알려진것처럼 원래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일정에 오른때부터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던것을 현 리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무슨 《민군복합항》건설이라는 얼림수로 민심을 다독여 겨우 착공식을 하였다. 하지만 갈수록 선명해지는 해군기지의 침략적성격과 위험성이 여러 기회에 폭로되고 생태환경과 문화유적들이 심히 파괴되는것으로 하여 각계의 항의와 규탄을 자아냈다. 결국 공사는 여러번에 걸쳐 중단되게 되였고 현지 주민들속에서는 《잃는것은 삶의 보금자리요, 직면하는것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였다. 이렇게 되자 리명박《정부》는 누구든 공사를 반대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고아대는가 하면 이에 항거해나서는 진보적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대고 공사현장에 경비함정 5척을 비롯하여 수많은 경찰병력을 투입하였다. 결과 현재까지 69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찰에 련행되였고 22명이 구속당했으며 4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법처리되고있다. 리명박《정부》가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갖은 폭거를 써서라도 한사코 강행추진하려고 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해상봉쇄와 북침전쟁준비를 완료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서 그것은 임기말기에 이르러 극도로 우심해지고있다.

이제는 《국회》결정도 무시하고 강권과 폭력에 매달리고있는판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임기말에 이른 마지막순간까지도 극도의 동족대결과 침략전쟁책동에 미쳐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고있는 현《정부》와 군부호전광들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비발치고 야당들을 비롯한 정치계에서는 공사강행은 국민기만, 《국회》무시의 처사라며 공사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하고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속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아닌 평화, 파괴아닌 생명을 위해 싸웠다.》, 《국가권력의 폭력과 거짓, 사기로 밀고나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수 있지만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며 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에 더욱더 떨쳐나서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이 건설공사가 전쟁, 파괴를 불러오고 조선반도주변을 비롯한 동아시아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극히 위험한 침략기지건설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은 제주도지역은 물론 남조선전역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 인민들의 거족적투쟁으로 급격히 퍼지고있다.

예로부터 우리 겨레가 귀중한 삶의 보금자리로 지키고 가꾸어온 남해기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며 제주도는 어느 하루밤도 잠들지 못하고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산삭감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동족대결의 종착점은 충돌과 전쟁

건전한 사고력이 마비된자의 무지한 칼부림이 예측할수 없는 불상사를 빚어낼수 있다.

리명박의 집권 5년간을 지켜본 사람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리명박은 집권하기 바쁘게 북남공동선언들을 그 무슨 《대남전략의 산물》이니, 《추상적》이니, 《원론적》이니 하며 헐뜯고 《6.15식통일은 절대로 안된다.》고 피대를 돋구면서 6.15이후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사변적인 성과들을 거세말살하였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10년》,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니 뭐니 하며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발악하였다.

리명박보수당국이 들고나온 《비핵, 개방, 3 000》과 《기다리는 전략》, 《3단계 통일방안》, 《북인권》 문제 등은 어느것이나 다 동족대결을 격화시켜 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위험한 기도였다.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대가로 미국에 구걸하여 남조선의 무기구매국지위를 끌어올리고 군통수권마저 쥐버렸으며 선임자들이 감히 엄두를 못낸 위험천만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가담해나선것도 바로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이다.

리명박보수세력이 집권한 이래 남조선에서는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 등 외세와의 대규모적인 북침전쟁불장난소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전쟁도발을 위한 군무력재편성, 최신전쟁장비도입책동도 본격화되였다.

오죽하면 남조선군부호전광들속에서 군부는 지난 10년간 《불소화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회춘한 기분》이라느니, 지금이야말로 《군사적우세》로 《대북압박을 최대》로 하여야 할 때라느니 하는 호전적발언들이 마구 튀여나오겠는가. 군부호전광들은 리명박의 그 무슨 《국정철학》과 달라진 《대북정책》을 따른다고 하면서 시대착오적이며 대결전쟁론인 《주적론》을 전면에 들고나왔으며 지어는 《선제타격》 폭언도 서슴없이 늘어놓았다.

미친자의 칼부림은 제 집안사람도 몰라보는 법이다.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의 책임을 북에 넘겨씌우며 반공화국전쟁책동의 도수를 높여온 리명박보수당국에 의해 북과 남사이에 포탄이 오가는 연평도사건도 일어났다.

리성적인 사고가 없고 극단한 동족적대의식만 골수에 찬 리명박보수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적행위는 무엄하게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고 레로음모를 꾸미는데서 최절정을 이루었다.

《인공기표적》사건, 남조선군병영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내다건 《구호 및 현수막》사건, 사격장에서의 최고존엄표적사건, 대국상을 당한 동족의 가슴에 총칼을 내댄 무례한 처사 등 모든것은 수십년간의 북남관계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특대형도발행위들이였다.

미친개가 돌아치는 동네가 한시도 편안할수 없다고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리성을 잃은 리명박보수집권세력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항시적으로 전쟁공포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조선반도에는 어느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충돌과 전쟁뿐이다. 이것은 지나온 북남관계 5년이 시사하는 교훈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10.4선언실천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대결광신자의 철면피한 망발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천영우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라는데서 리명박의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는 궤변을 늘어놓아 내외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여기서 그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느니, 《대북억지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고 인명손실도 있었지만 그 결과로서 〈한〉반도 평화결정권을 회복했다.》느니 하고 떠들었다. 뿐아니라 다음기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신뢰다 뭐다 해놨지만 현 〈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른것은 없다.》느니 《기본철학은 같다.》느니 하면서 저들의 대결정책이 그대로 연장될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리명박의 극악한 대결망동실현을 위해 앞장에 나선 반통일사환군의 역겹기 그지없는 추태라 하지 않을수 없다.

리명박당국이 지난 5년간 줄곧 내들었던 이른바 《원칙있는 대북정책》이 동족분렬을 조장하고 전쟁을 부추기며 《흡수통일》을 노린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책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온갖 대규모침략전쟁연습과 북침도발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 해외에 나가서까지 동족에 대한 비방과 악담을 퍼부어댄것이 바로 천영우와 같은 리명박당국의 반통일역적들이다.

심지어 그들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까지 《돈을 주고 사는 평화》로 모독하면서 그 리행을 가로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감행한 온갖 반통일죄악들에 대해 겨레앞에 석고대죄할 대신 오히려 그를 미화분식하고있으니 천영우의 언동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라 해야 할것이다.

더우기 위험한것은 천영우가 이제 집권할 세력의 《대북정책》도 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것이 없다.》, 《기본철학은 같다.》고 떠들어대면서 대결정책연장을 떠든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앞으로의 5년도 리명박당국처럼 남측집권자들이 대결과 적대의 반공화국정책을 지속하라고 부추기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산송장에 지나지 않는 리명박이나 천영우와 같은 대결분자들의 망발에 민족은 이미 침을 밸은지 오래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동족대결이 가져올것은 오직 전쟁뿐이며 그 결말은 처참한 파멸뿐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본사기자 명금룡

조건없는 북남대화와 협력교류를 주장

5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남북경제협력활성화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이 조건없는 북남대화와 협력교류를 주장하였다.

그는 《북의 변화》를 전제로 한 그 어떤 약속도 무의미하다는것이 리명박《정부》 5년을 통해 검증되였다고 밝혔다.

그는 당국이 남북협력교류에 적극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판을 치는 외래어, 사라져가는 민족성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이 저저마다 자기의 민족어를 자랑한다지만 우리 조선어처럼 우수한 민족어는 없다. 세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영국의 음성언어학자 제프리 삼슨교수는 조선글이 소리글자이지만 새로운 높은 단계의 자질문자로 된다고 평하였고 세계에 이름난 대학으로 알려진 영국 옥스포드종합대학 언어학대학에서는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 모든 문자들의 순위를 정하였는데 조선어문자를 첫자리에 놓았다고 한다.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에서 세종왕시기에 처음으로 만든 《훈민정음》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한 사실만 봐도 우리 말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잘 알수 있다. 우리 말이 세계앞에 그렇듯 긍지높고 자랑스러운것은 더우기 그것이 단일민족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파란많았던 력사속에서도 우리 겨레가 민족의 얼과 넋으로 간주하고 생명보다 더 귀중히 지키고 고수해온 조선어이다.

그런데 이렇듯 세상제일의 민족문화유산이며 단일민족의 상징인 우리 말이 남조선에서 점차 사라져가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거리간판들과 회사이름들, 지어 공공기관 직무까지 외래어로 불리우고있으며 사회적으로 조선어와 일어, 영어를 섞어쓰고 외국말투로 말하는것이 추세로까지 되고있다. 영문략자로 기관명칭을 달거나 영어로 작성된 공문을 내려보내고 직원들의 회의도 영어로 진행되는 등 우리 말이 뒤전으로 밀리고 외래어와 잡탕말이 판을 치는 현상들이 보편화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외래어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일반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외래어만도 4 500여개나 된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방송기사제목이 외래어로 된것은 전체의 50%이상, 매 신문당 하루평균 800여개의 단어가 외래어로 씌여지고있는 형편이다. 이 정도이니 사람들속에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수 없는 《문맹자》수가 해마다 늘고 하나의 피줄을 나눈 북과 남의 형제가 만나도 말뜻이 제대로 통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세계제일의 언어를 가진 민족이면서도 그것을 버리고 외래어를 쓰는 희비극이 남녘땅에 펼쳐지게 된것은 온갖 사대주의에 물젖어 민족성을 말살한 력대 남조선독재《정권》의 반민족적 책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신문이 《조선사람이면서도 백인을 선망하고 백인행세를 하며 백색사고를 하는 무리가 민족을 망치고있다.》고 개탄한바 있지만 사대를 일삼아온 력대 남조선독재《정권》들은 한결같이 《국제화》, 《세계화》의 간판밑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를 말살시켜왔다.

리명박친미보수《정부》에 이르러 그러한 책동은 더욱 우심해졌다.

청와대에 들어앉자마자 《세계화》를 실현하려면 미국을 알고 미국을 알려면 영어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것도 남조선집권자이다. 리명박《정권》은 그 실현을 위한 《교육개혁정책》의 하나로 《영어공교육강화방안》이라는것을 내들고 영어교육강화를 위해 집권기간 43억US$를 투자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은 나오자마자 민족성을 말살하고 미국의 식민지화를 《자초》하는 《영어사대주의》라는 남조선 사회계의 강한 비난과 반대에 부딪쳤지만 리명박《정권》은 지금까지 이것을 고집하며 강행해왔다. 결과 학생들속에서 영어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보통교육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민족어, 력사과목실력이 더욱 떨어지게 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조사결과 초등학교 학생들가운데서 영어과목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59%이상이지만 조선어과목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19%에도 못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학생들을 우리 말과 글, 력사도 모르고 영어만 외우는 《무국적자》로 만든셈이다.

남조선집권자는 《대통령》취임식에 앞서 《현충원》에 찾아가 방문록에 글을 남겼는데 《바치겠습니다.》를 《바치겠읍니다.》로 써 조선글맞춤법도 잘 모르는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았던적이 있다. 게다가 《대통령》취임식에서 할 취임사를 이미 수차에 걸쳐 읽어보면서 련습을 하였지만 정작 취임식장에서는 발음이 자꾸 꼬여 원고를 제대로 읽지 못해 27분분량의 취임사랑독이 무려 36분간이나 걸렸다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리명박은 집권하자마자 미국으로 날아가 민족의 망신을 톡톡히 시켰다. 기자회견마당과 부쉬와의 회담에서 영어로 말하고 미국경제인들과의 회담락에서는 발음이 한심한 엉터리 영어로 말해 청중을 어리둥절하게 했다지 않는가.

외교관례로 봐도 그렇지만 변변한 자기 글을 가지고있지 못한 나라 수반들도 자존심을 살려 외국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영어를 알아도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것이 통례이다. 하물며 좋은 제 민족어를 두고서도 동네방네 다니며 서툰 꼬부랑말만 해댔으니 남조선사회가 어디로 갈것인지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민족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주요징표의 하나이다.

장철수

인민생활향상을 중요한 과업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읽어보느라면 올해의 투쟁에서 인민생활향상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여있음을 알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새 세기 경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올해 모든 경제사업은 이미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잘 활용하여 생산을 적극 늘이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야 합니다.》

《경제건설의 성과는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입니다. 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경공업공장들에 대한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축산과 수산, 과수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더욱 풍족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강도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애써 마련해놓으신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어려있는 신년사의 구절들을 새겨보는 공화국인민들의 가슴속에는 지난해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이 다시금 뜨겁게 안겨진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속에 지난해 평양시에 창전거리와 릉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섰고 온 나라 각지에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시설들이 수많이 꾸려졌다.

인민들에게 가장 풍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는것이 그이의 확고한 의지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도 인민생활향상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신것이다.

남조선의 언론(《뉴스1》)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신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특히 주민생활부문에서의 향상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위성발사의 성공을 계기로 올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며 〈인민생활향상〉에 방점을 찍었다.》고 신년사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자기들에게 훌륭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애국열의에 충만되여 새해의 진군길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본사기자 김 춘 경

맛좋은 과일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있다.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증산의 동음 울린다

새해 첫 진군길에 들어선 황해북도 연탄군 식료공장에서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이 공장에서는 인민들에게 공급할 기초식품, 당과류, 기름, 남새가공품 등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을 찾은 우리는 말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이곳 종업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반만년민족사의 특대사변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소식에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끝없는 환희와 격정을 안고 새해벽두부터 생산적앙양을 일으켜가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이였다.

공장의 김태식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새해 신년사에는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들에서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10월 중순까지 완수하고 올해에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원료원천을 이미 확보해놓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을 기한전에 반드시 관철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에 넘쳐있습니다.》

기초식품작업반에서는 된장과 간장의 맛과 질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었다.

오철영 기술준비실 실장은 지난해에 공장에서 생산한 간장이 전국적인 기초식품전시회에서 순위권에 든 자랑을 안고 올해에는 그 질을 더 높일 결의를 피력하였다.

당과류작업반에서는 사탕과 과자생산공정을 자동화한데 기초하여 질좋은 당과류를 더 많이 생산하여 군내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생산에서 련일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었다.

이에 뒤질세라 콤퓨터조종실에서는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을 콤퓨터화하기 위한 연구를 국가과학원의 해당 부문 연구사들과 협동하여 진행해나가고있었다.

공장에서는 이미 기초식품과 기름, 당과류의 생산과 제품출하의 전반공정을 감시 및 통제할수 있도록 콤퓨터화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장에서는 남새가공품과 술 등 모든 제품생산과 업무를 콤퓨터로 조종하고 장악통제할수 있도록 콤퓨터종합조종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었다.

이들은 첨단돌파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년초부터 이 연구사업에 첫째가는 힘을 넣고있었다.

올해 공장이 내세운 과학기술연구과제와 생산목표는 매우 높으며 난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학자들처럼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릴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승리의 신심에 넘쳐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이다.

본사기자 박 금 일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리운 우리 나라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삼천리금수강산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여기서 《삼천리》는 우리 나라 령토의 면적도 아니고 국경선의 총길이도 아니다.

그러면 왜 삼천리금수강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였는가.

원래 우리 나라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분포되여있는 3 3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삼천리라는 말은 우리 나라 북남의 최대의 길이 2 100리 (약 840㎞) 에 동서의 최대길이 900리 (약 360㎞) 를 합하여 3 000리가 된다는 데로부터 나왔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삼천리비단에 수를 놓은듯이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금수강산으로 불리웠다.

우리 나라에는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을 비롯하여 그 어디에나 수려한 산이 있고 넓고 비옥한 들이 있으며 맑은 강하천과 무성한 산림이 많다.

또한 우리 나라의 기후는 사람들에게 알맞춤하며 뚜렷한 4계절에 따르는 경치는 참으로 아름답다.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불렀다.

본사기자

아름다운 대동강반에 물오리떼 날아든다. 본사기자 동창현 찍음

천연기념물
룡악산느티나무

룡악산느티나무는 법운암앞에 있다. 이 느티나무는 1440년경에 심은것으로서 560여년 자란 나무이다.

이 나무는 높이 18m, 뿌리목둘레 7.1m, 가슴높이둘레 5m, 나무갓너비 15m이다. 6m높이에서 세갈래로 갈라져 왕성하게 자란 나무갓은 우산모양을 이루고있다.

인민의 문화휴식터인 명승지 룡악산에서 푸르싱싱 자라고있는 룡악산느티나무는 생김새가 기묘하여 풍치를 돋구는데서나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잎지는넓은잎키나무인 느티나무는 일명 《정자나무》라고도 불리운다. 60～80년까지는 빨리 자라고 그후에는 더디게 자란다.

나무는 오래 살고 모양이 아름다우며 빨리 자라므로 정원이나 공원, 유원지, 마을의 풍치림으로 많이 심는다.

본사기자

우리 말 상식

보조개와 볼우물

둘다 웃을 때 볼에 움폭하게 들어가는 자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보조개는 볼조개에서 《ㄹ》받침이 빠진 단어로서 웃을 때 볼에 움폭하게 들어간 자리가 조개모양같음을 이르는 말이다.

례: 분이는 보조개가 움폭 패이도록 웃고있었다.

볼우물은 웃을 때 볼에 우물처럼 움폭하게 패이는것을 이르는 말인데 보조개보다 후에 생겨났다.

결국 보조개와 볼우물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뜻이 같은 말이다.

례: 볼우물을 새기면서 웃다.

본사기자

건강상식

병세에 따르는 잠자세

잠을 잘 때의 자세가 합당치 못하여 질병이 발생되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잠자세를 바로하면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병세를 호전시킬수 있다.

* 심근염, 천식, 심장기능부전환자

절반정도 누운 상태(상반신을 높인 상태)에서 자는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산소흡입량을 늘이고 피순환을 개선시킬수 있다.

* 중이염환자

앓는 쪽의 귀에서 고름이 빠져나올수 있도록 모로 누워 자야 한다.

* 호흡기환자

량쪽폐에 다 병이 생긴 환자는 반듯이 누워자는것이 제일 좋다. 왼쪽폐를 앓는 환자는 왼쪽으로, 오른쪽폐를 앓는 환자는 오른쪽으로 누워자야 한다.

* 뇌혈전환자

반듯하게 누워 자야 혈액순환장애가 없어진다.

* 추간판탈출증환자

굳은 침대우에 바로 누워자야 곧은 자세를 취할수 있다.

본사기자

겨울철민속놀이
장치기

장치기는 추운 겨울철에 청년들이 제일 즐겨한 집체적인 경기놀이였다.

장치기는 두 편이 서로 나무채로 공을 몰아 공문에 넣는 민속놀이이다.

경기라고 하지만 경기장규격도 기구도 경기인원도 딱히 정해져있지 않으며 아무때나 아무데서나 놀수 있었다.

장치기의 기구로서는 공과 채만 있으면 되는데 공은 대개 소나무의 옹이가 있는데를 둥글게 깎아서 만들었고 공채는 지게작대기같은것을 거꾸로 잡고 썼다. 장치기에 쓰는 공을 《장》 또는 《장방울》이라고 한다.

장치기는 풀베기철에 평탄한 풀판에서도 벌렸지만 겨울에 얼음판에서 하는것이 더 볼만 했다.

설명절이나 추석때에는 민속놀이의 중요한 내용으로 성황을 이루기도 하였다.

장치기의 경기방법은 처음에는 두 편이 벌려선 중앙선으로부터 공을 서로 빼앗을 내기를 하며 자기 편 선까지 몰아가는것이였다. 그러다가 후에는 공을 상대편 문까지 몰아가서 처넣었다. 경기도중에 공은 반드시 공채로만 쳐야 하며 손이나 발로 다치면 반칙이 되였다.

장치기는 여러번 하여 승부를 겨루었는데 같은 방법을 거듭한것이 아니라 매번 방법을 달리하여 어느 편이 몇번 이겼는가 하는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승부를 결정하였다.

본사기자

겨울철건강에 좋은 굴

굴은 예로부터 추운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즐겨 찾는 식료품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굴은 사람들속에서 겨울철의 《사랑의 묘약》, 《바다의 우유》, 《완전한 식품》으로 호평을 받고있으며 겨울철에 굴만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즐기는 식품은 없다고 한다.

사람은 기온이 떨어지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에네르기를 소비하게 되는데 굴은 자기의 고유한 맛과 충분한 영양성분을 가지고있어 추운 겨울철에 사람의 몸에서 소비된 열량을 보충하는데 더없이 적합한 식품으로 되고있다.

굴에는 단백질 10%, 지방 3.6%, 탄수화물 5.1%, 칼시움 1.7%, 비타민 A, B_1, B_2, 철, 요드, 린, 망간 등 영양성분이 풍부히 들어있다. 굴은 《동물성농마》란 별명이 붙을만큼 흡수가 잘 되며 굴에 들어있는 타우린은 혈압을 정상치로 조절해주어 혈전을 예방하는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가라앉혀준다고 한다. 굴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여있지만 그것은 불포화지방산이고 약한 알카리성식품이기때문에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어린이, 로인, 병약자들에게 좋다고 한다.

특히 굴에는 상처를 잘 아물게 하며 세포의 재생을 돕고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아연영양소가 들어있다.

굴은 날씨가 차지여 영양물질의 함유량이 최대수치에 이르는 11월부터 2월사이에 따는것이 제일 맛이 좋고 효능도 높다고 한다.

굴은 회로 만들어먹을뿐아니라 밥, 죽, 국, 젓갈 등 다양하게 료리하여 먹을수 있으며 음력 1월을 전후로 하여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양배추, 귤, 레몬과 같은 남새류와 과일류를 함께 먹으면 굴의 맛을 한층 돋구어주고 약효능도 배로 높여준다고 한다.

본사기자

야담
아첨 아닌 《아첨》

우리 나라 중세시기에 있은 일이라고 한다. 담높은 대관원의 뒤뜰안에서 휴식중이던 관리 몇몇이 한담을 하다가 별치 않은 일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화제의 론점으로 된것은 학의 날개가 검으냐 아니면 꼬리가 검으냐 하는것인데 두 편으로 갈라진 이들의 론쟁은 좀처럼 끝날줄 몰랐다.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늙은 아전 하나가 이를 귀동냥해듣고는 피씩 웃어버렸다. 일이 안될세라 어느짬에 그를 떠여보았는지 날개 검다는 편 관리 한사람이 트집을 걸었다.

《네 이놈, 어디다 대고 감히 코방귀질이냐!》

결달아 꼬리편 관리도 잰내비 코수염을 비비꼬며 째진 소리를 냈다.

《허, 무엄한지고. 그놈 버릇 심히 고약하도다.》

아퀴를 짓지 못한 분풀이가 그대로 아전에게로 향해졌다. 그러거나말거나 아전은 머리를 조아리며 제잡담 주어섬겼다.

《그런게 아니라 저에게는 이켠분들의 말씀도 물론 옳고 저켠분들의 말씀도 그르지는 않는지라 궁정을 표하자던 노릇이 그만…》

《뭐, 뭐, 뭐라구.》

두 량반님네들이 말허리를 꺾으며 노발대발했다.

《인젠 량반 놀리려구까지 들어. 여봐라, 게 누구 없느냐. 저놈 당장 형틀에 끓어앉혀라-》

주변이 순식간에 살벌해졌다. 산전수전 다 겪은 아전이였으나 잠시 생각이 궁해졌다. 량반권세 높은줄 과히 모르는바 아니였으나 이렇듯 맹랑하게 두 거미줄싸움에 우연히 날아든 곤충신세가 될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학의 날개 검다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꼬리 검다는 《어르신네》들이 가만있을리 만무하였고 그렇다고 이제 어디 가서 당장 학을 잡아다 보여줄수도 없는 형편인지라 이마에서 애꿎은 땀만 빠질빠질 돋았다. 그러나 독틈에도 용수는 있는지라 이리저리 궁냥을 한 아전은 재차 무릎을 꿇으며 어푸라지는 시늉을 하였다.

《제 어찌 그런 불칙한 마음을 먹었겠소이까. 그러하오니 소인의 얘기 마저 들으시고들 판결을 내리시오다.》

부산을 피우던 량반님네들이 금시 귀를 쭝깃거리며 주춤하였다. 하기야 궁금증도 날만 하였다.

《실은 학이 하늘을 날면 날개가 검고 땅에 내려서면 꼬리가 검은줄로 아뢰나이다.》

《엉?!》

순간 사위는 쥐죽은듯 고요해졌다. 이때라고 생각한 아전은 뒤로 물러나 《소인은 그만 실례하겠소이다.》하고는 제꺽 뺑소니를 쳤다.

비록 이날 늙은 아전이 제 한목숨 살리려고 아첨하긴 하였으나 이 《아첨》속에는 무식한자들에 대한 신랄한 야유도 함께 깔려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유모아
《먼저 먹을것을…》

린색하기 그지없는 부자집마누라가 하루는 머슴을 불러놓고 자비를 베풀듯 말하였다.

마누라: 《우리 령감이 입던 헌 바지를 주면 좋겠는데 자네에게는 허리품이 클것 같구만.…》

머슴: 《그럴것 있습니까. 먼저 먹을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허리품도 알맞게 될것입니다.》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 집 위 원 회